

BIEF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2021

FOIRES DU MONDE*

SEOUL

* 2021 서울국제도서전 - 서울특별시

저작권 판매 현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관련 최신 정보는 해당 출판사의 저작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Bureau International de l'Édition Française
115, bd Saint-Germain - 75006 Paris, France
t. +33 (0)1 44 41 13 13 - f. +33 (0)1 46 34 63 83
info@bief.org - www.bief.org

Éditions Jésuites



- › 자본주의의 정신은 어디 있는가?
- › 가족, 아름답고 연약한 그 이름
- › 저 너머에
- › 기적을 일으키는 공감의 힘
- › 위태로운 우리들의 집

예수회 출판사

예수회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에티엔 페로

경제, 문화, 생태학, 정치 및 사회가 형성한, 제한적인 논리를 가진 복잡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ESPRIT DU CAPITALISME, OÙ ES-TU ?

자본주의의 정신은 어디 있는가?

자본주의에는 자체 논리가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정신은 있을까? 자본주의 시스템과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개개인의 개인적 열망 사이에 대립은 불가피하다. 이 대립은 사회적 생활 전반에 걸쳐 이어진다. 밀의 가격, 예술의 가치, 건강의 가격, 회사 사장이나 정치인들의 기분, 암호 화폐, 코로나바이러스, 물의 민영화, 도박에 부과하는 세금 등. 각각의 상황은 사회의 경제주체들에게 도전적인 딜레마를 야기하고 타협안을 제안하며 개개인을 구별해줄 의미를 부여하는 고유의 가치를 드러낸다.

레시우스 | 9782872993963 | 2020
348쪽 | 20,5X14,5 CM | 24.50 €

인문사회·에세이



오랑 드 모토르 알랭 토마세

이 책이 다루는 주요 영역은 결혼 준비, 부부와 가족의 격려와 지원, 복잡한 가족 상황에 대한 동반자적 인식과 교회로의 통합 등이다.

› FAMILLES, BELLES ET FRAGILES !

가족, 아름답고 연약한 그 이름

부부와 가족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도적 권고 <Amoris Laetitia (사랑의 기쁨)>은 교회 안팎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교구, 본당 및 실행 과정에서 이 권고의 적용은 수많은 실제적인 질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족적 목회의 돌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사도적 권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경험들을 제시하는 책이다.

피델리테 | 9782873568610 | 2020
204쪽 | 20,5X13,5 CM | 14.00 €

예수회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브누아 드 반스트

사후 세계를 바라
보는 기독교적 사고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 L'AU-DELÀ

저 너머에

저자는 사후 세계라는 주제와 관련된 연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성서가 해당 주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표현하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성경과 구약과 신약 말씀을 듣고, 교부, 신학자, 신비주의자, 교도권과 전례를 하나씩 짚어 가며 사후 세계라는 어려운 주제에 대한 각각의 공헌을 확인한 뒤, 해당 주제에 관한 가톨릭 신앙의 본질을 종합하는 훌륭한 결론으로 마무리된 책이다.

피델리테 | 9782873568580 | 2020
128쪽 | 19X12 CM | 9.50 €

실용·자기계발·취미



미셸 박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사랑의 힘을 깨우는 법.

› L'EMPATHIE FAIT DES MIRACLES

기적을 일으키는 공감의 힘

타인과 자신에게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 <비폭력 소통>이라는 개념의 설계자인 마셜 로젠버그는 이 공감의 힘을 '사랑의 신성한 힘'이라고도 부른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소통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했던 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였다. 성령의 힘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재한 공감력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피델리테 | 9782873568443 | 2020
156쪽 | 20,5X13,5 CM | 15.00 €

예수회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브누아 베르망데

전염병으로 인해 집에 갇혔던 경험은 아직도 우리 내부에 생생하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의 힘을 일깨웠다.

› QUE CETTE DEMEURE EST DONC PRÉCAIRE ! :
DE CHINE, PENSER EN PANDÉMIE

위태로운 우리들의 집

중국에서 전염병의
시대를 생각하다

전염병으로 인해 집에 갇혔던 경험은 아직도 우리 내부에 생생하다. 그 경험은 우리의 상상력의 힘을 일깨웠다. 우리는 과거를 다시 읽었고, 과거 안에 웅크리기보다는 과거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찾았다. 또한 지역 사회 및 국가 공동체, 유럽과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영적이고 정치적이고 혹은 수식어를 붙이기가 모호한 모든 종류의 문제를 더 잘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로부터, 예수회적 뿌리와 중국이라는 세상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고전 읽기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조유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삶의 조건에 대한 윤곽을 그려냈다.

레시우스 | 9782872993970 | 2020
132쪽 | 20,5X14,5 CM | 11.00 €